

S-7

교합기의 사용



정재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 | |
|-----------|----------------------|
| 1978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1981 | 조선대학교 부속치과병원 보철과 전공의 |
| 1984~현재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
| 1985~1986 | 미국 미시간대학교 치과대학 객원교수 |
| 1999 | 독일 괴팅겐 치과대학 방문교수 |
| 1994~1998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장 |

교합기란 생체의 하악골 운동을 모방, 재현 시키기 위하여 악관절(T.M.J.)에 해당하는 구조와 상하악 모형을 부착할 수 있는 상악부와 하악부를 갖춘 기계적인 장치로서 기계적인 악골이라고도 부르며, 교합의 진단, 인공치의 배열 및 보철물의 교합면 형성 등을 위하여 상하악 모형 간의 관계를 하나의 정적 위치적 관계 및 다수의 기능적 위치적 관계로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악운동 모방기인 교합기를 임상에서 사용시엔 인체에서 일어나는 하악 운동의 해부학적 제어인 과두 유도 및 전방 유도를 교합기에 programming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합기를 조절할 때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후방 조절부 : 과두 조절 장치
환자 악관절의 특성을 고려하여 check bite 등을 채득하여 조절한다.

- (2) 전방 조절부 : 절치 유도 장치
유치악에 있어서는 전치의 수직 및 수평 피개를 고려하여 조절하며 무치악에 있어선 전치의 수직 및 수평피개는 심미성과 발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교합기 조절부에 대해 올바른 위치로 모형의 부착
안궁을 이용하여 환자의 접번측과 상악 치아와의 삼차원적인 위치 관계를 교합기의 접번측과 상악 모형 위의 치아와의 위치 관계로 그대로 이전시킨 후, 중심위 기록을 채득, 이를 이용하여 상악모형에 대해 하악 모형을 부착한다.

따라서 총의치 제작 및 조절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는 반조절성 교합기의 장단점 및 제한을 살펴보고 총의치와 관련된 교합기의 임상적 사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